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

원성옥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1. 머리말

수화가 언어인가? 그렇다. 수화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언어이다. 1960년대 미국 갈러뎃 대학교(Gallaudet University)의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가 처음으로 수화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이래로 수화는 완벽한 언어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인 관련 전문가나 여러 이유로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수화를 음성 언어와는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또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화라고 하면 ‘만국 공통어’라고 생각하거나, 음성 언어보다는 어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언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농인을 들을 수 없거나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화를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쯤으로 여긴다. 또한 농인은 음성 언어(한국어)를 들을 수 없지만 글을 읽어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에 불편

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농인은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 음성 언어(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음성 언어에 해당하는 문자 언어의 습득에도 어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농인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시각 언어인 수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화라는 언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 체계를 통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엇이든지 배우고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다.

미국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수화를 농인의 모어인 제1 언어로 인정하여 수화를 통해 교육 과정에 접근하도록 한다. 즉, 이러한 교육적 입장을 가진 농학교에서는 어린 농아들에게 먼저 이들의 제1 언어인 수화를 가르치고, 그 수화를 통해 영어(덴마크어)를 배우도록 한다. 이는 수화의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한 결과이다.

이제 복지 국가 반열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농인의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수화기본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 정도로 자칫 오해하기 쉬웠던 수화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화는 음성 언어와는 다른 체계이므로 일반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화가 언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을 언어학에서 설명하는 틀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화가 언어인 증거

언어는 동물의 의사소통 도구나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즉, 모든 언어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는 달리 자의성, 분리성, 생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이 수화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수화가 언어로서 분명한 자격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2.1. 자의성

언어는 기호(음성 언어에서는 소리)와 그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기호의 형태는 그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인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이 둘의 관계가 관습적이고 자의적(임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 기호를 보고(듣고) 기호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자의성(임의성)이라 한다. 언어의 이런 자의성 때문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라마다 다르며, 모르는 언어에서는 그 언어의 기호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시각 언어인 수화에도 이러한 자의성이 있다. 물론 수화에서는 기호를 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도상성(사상성)이 있긴 하지만, 단순화된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어휘들이 많다. 또한 도상성만 가지고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화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도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엄지와 소지(새끼손가락)를 펴고 나머지는 접은 손 모양을 하고 귀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하는 [전화]와 같은 한국 수화는 그 수화 기

호를 보고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화 단어는 한국 수화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수화는 어원적으로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있는 옛날 중·고등 학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수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 수화 기호를 보고 ‘학생’이라는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도상성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수화 어휘라 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

또한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같은 사물이나 의미를 알리는 이름이 언어마다 다른데, 수화 역시 나라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의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수화는 분명히 자의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언어이다.

2.2. 분리성

언어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 달리 내적 구조를 가지며, 그 구조는 사용자가 분리할 수 있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분리성이라 한다. 즉, 문장을 단어로, 단어를 형태소로, 다시 음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 기호는 작은 단위로 세분될 수 있으며, 다시 의미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한다. 또한 음성 언어의 경우 단어에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 즉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들이 결합해 단어를 생성해 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달’이라는 단어는 [ㄷ][ㄴ][리]이라는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ㄷ]이라는 첫 소리 하나만을 [ㅌ]으로 바꾸면 ‘딸’이라는,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된다. 그리고 이 ‘달’과 ‘딸’이라는 두 단어는 두 개의 소리가 같지만, 의미상 전혀 관계가 없다.

수화도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언어이

다. 수화 역시 문장을 단어로, 그 단어를 형태소로, 다시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언어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를 기본 단위로 사용해 일정한 결합 원리에 따라 의미 단위를 생성해 낸다. 수화 단어는 손의 모양인 수형소, 손의 방향인 수향소, 손의 위치인 수위소, 손의 움직임인 수동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분리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운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2.3. 생산성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달리 무한한 수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끝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언어의 생산성 또는 창조성이라고 한다.

수화 역시 이러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집], [가다]라는 단어를 배열해 ‘집에 가다’라는 평서문의 문장을 생성해 내는가 하면, [아직]이라는 수화 단어를 첨가해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어휘와 어휘의 복합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화 단어가 만들어진다. 수화 단어의 생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태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2.4. 역사성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 상호 작용의 결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점 변한다. 필요에 의해 새로운 어휘가 탄생하기도 하고, 변화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전개되

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의 조어나 변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수화 어휘 역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이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특히 수화 어휘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간편하고 수월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한 수화는 생성되고 불필요한 수화는 사멸된다.

2.5. 전위성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로는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밖에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지금과 여기를 떠난 과거와 미래, 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서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전위성(轉位性, displacement)이란 특성을 갖는다. 수화 역시 현재나 즉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전위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수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일과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2.6. 문화적 전달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습득된다. 따라서 어떤 언어를 습득하느냐는 어떤 언어권에 노출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문화적 전달이라고 한다. 즉,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문화권에서 살면서 한국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문화적 전달이라는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인이라고 모두 수화를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수화 역시 수화 언어권에서 자라야만 수화 습득이 가능하다. 농인 부모를 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듣는 것과 상

관없이 수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도 수화 언어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3. 한국 수화 음운론

윌리엄 스토키는 미국 수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수화소(chereme)를 분리해 내는 연구를 하면서 언어학의 음운론(phonology)에 해당하는 ‘케롤로지(cherology)’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수화 언어학에서도 언어학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에 대한 연구 분야를 음운론이라 한다. 수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수화소란 수형(손의 모양), 수위(손의 위치), 수동(손의 움직임), 수향(손 또는 손바닥의 방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얼굴 표정 등 손 이외의 다른 표지)다. 이 장에서는 수화 음운론, 즉 수화 단어에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시각적 변별 요소인 수화소의 구조를 한국 수화에서의 최소 대립쌍 단어의 예를 통해 살펴본다.

3.1. 수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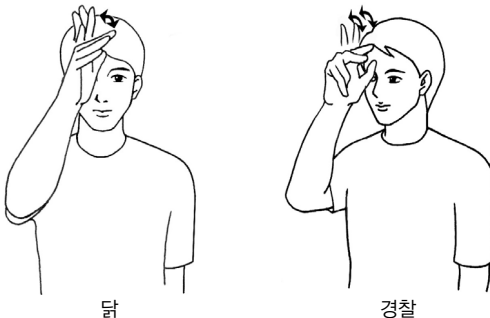
수형소는 손가락의 접음과 펴(주먹 쥐고 펴), 편 손가락(즉 선택한 손가락)의 구부림 유무, 편 손가락들 사이의 접촉 유무, 그리고 엄지를 제외한 편 손가락들 사이의 벌림과 붙임에 의해 그 변별 자질이 나뉜다. 처음으로 미국 수화를 언어학 관점에서 연구한 윌리엄 스토키(1960)는 수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하는 손의 결합 구도를 데즈(Dez, designator)라 하고, 미국 수화의 데즈(Dez)로는 19개가 있다고 규정했다. 김승국(1983)은 의미 있는 위치에서, 의미 있는 운동

을 하는 한 손 또는 두 손의 결합을 수형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 수화에서는 스토키(1960)가 분석한 19개 외에 10개의 수형소를 더 분리해 내어 29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했다. 석동일(1989)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두 손의 형태를 수형이라 정의했다. 또한 수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수형이 필요하기도 한데 처음 수형과 마지막 수형에 한해 분석한 결과, 21개의 표준 수형소가 있고, 다시 각 수형을 잘게 나눔으로써 44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 언어에서 최소 대립쌍이라고 불리는 단어 쌍을 통해 음운론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음소를 분리해서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화에서도 이러한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수화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우리말에서 보면 ‘달’과 ‘탈’이라는 두 단어는 연속해서 나는 세 개의 소리 중 하나의 소리만 달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두 음 ‘ㄷ’과 ‘ㅌ’은 우리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음소가 된다.

한국 수화에서도 이러한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수화

그림 1 수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수위와 수향이 같으며 수형에서만 달라 그 의미가 바뀌는 수화는 [땀]과 [경찰]이 있다. [땀]과 [경찰]은 수위가 이마, 수동은 손가락 각자 운동(손가락 흔들기), 수향은 손바닥이 왼쪽으로 동일하다. 단지 수형이 엄지와 검지와 장지(가운뎃손가락)만을 편 수형이나 다섯 손가락 모두 편 수형이나에 따라 그 의미가 [경찰]에서 [땀]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 수화에서 엄지와 검지와 장지만 편 수형과 다섯 손가락 모두 편 수형은 수형소가 된다.

3.2. 수위소

스토키는 수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 수화가 이루어지는 위치를 탭(Tab, tabulator)이라 하고, 미국 수화의 탭(Tab)은 12개가 있다고 했다. 김승국(1989)은 수형이 의미 있는 운동을 하는 위치라 하고 스토키(1960)가 분석한 12개 외에 11개의 수위소를 더 분리해 내어 한국 수화에는 23개의 수위소가 있다고 했다. 이는 스토키(1960)가 어깨와 엉덩

그림 2 수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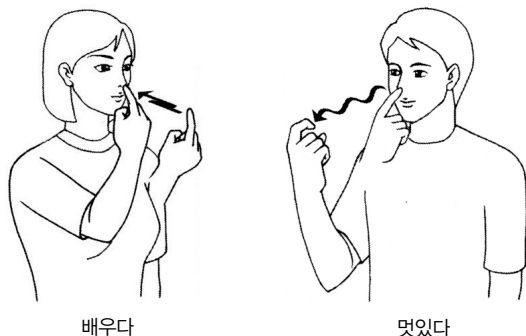
이 사이의 몸통을 하나로 본 것에 비해 김승국(1989)은 어깨, 척추, 가슴, 배 옆구리와 허리를 세분화했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중요 신체 부위를 수위소로 다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석동일(1989)은 김승국이 넣지 않은 공간과 양손 수화에서 나타나는 손을 수위소로 넣고 20개의 수위소를 분리해 냈다.

한국 수화에서 다른 세 가지 수화소는 같으나 수위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만들대와 [하대가 있다. [만들대와 [하대라는 수화 단어는 양손을 주먹 쥔 수형에서 오른손이 주먹 쥔 왼쪽 손 위를 두드리느냐, 왼쪽 손목 위를 두드리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왼쪽 손의 하박(아래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을 두드리면 [수괴가 된다. 따라서 한국 수화에서는 손, 손목, 하박이 다 수위소가 된다.

3.3. 수동소

김승국(1983)은 수화의 운동 성분, 즉 수형의 운동을 수동이라 했는데, 스토키는 이를 시그(Sig, signature)라고 했다. 스토키가 미국 수화의 시그를 24개로 분석한 것에 비해 김승국은 한국 수화를 분석해 36개의 수동소를 밝혀냈다. 김승국은 스토키가 분석한 미국 수화의 상, 하, 좌, 우, 내향, 외향 외에 방향을 서북향, 동남향, 서북향, 동남향, 서남향 등으로 세분했으며, 동작의 속도와 강약도 수동소로 보았다. 또한 석동일(1989)은 수동소를 운동의 방향과 양손의 관계, 동작의 양과 질적 변화로 나누어 49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했다. 한국 수화의 수동소 분석과 스토키 체계의 큰 차이점은 동작의 양과 질에 해당하는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 부드러운 동작과 강한 동작 등을 변별 자질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3 수동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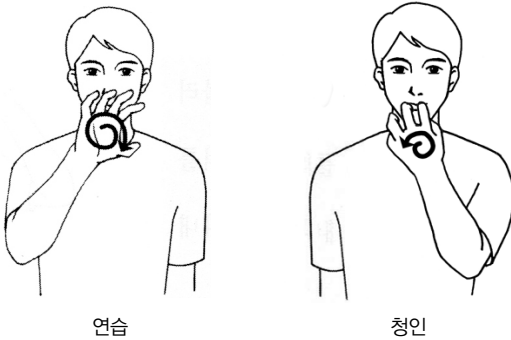
동작의 질적인 부분은 수동소로 보기보다는 수화 문장 안에서 부사적인 역할이나 감정의 표현과 강조 등 통사적 역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화에서 세 가지 수화소는 같으나 수동 하나만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배우다]와 [멋있다]가 있다. [배우다]와 [멋있다]는 검지만 편 수형, 콧등이라는 수위, 몸 쪽으로 향한 수향이 같다. 그러나 [배우다]는 수평의 전후 방향 운동을, [멋있다]는 손가락 관절 굴곡 운동을 하여, 수동에서만 달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변한다.

3.4. 수향소

스토키는 미국 수화를 음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수형, 수위, 수동의 요소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화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수향, 즉 손의 방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수향 역시 수화에서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은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도 시각적인 변별 자질이 된다고 하고, 이를 수향소라 했다. 김승국은 손바닥 방향 10개와 손가락의 10개 방향을 수

그림 4 수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향소로 보았다. 그에 비해 석동일은 손가락의 방향도 엄지와 나머지 4개 손가락의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할 경우 표기의 혼란을 우려해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전, 후, 이렇게 6개씩 보았다. 물론 편 손가락(선택된 손가락)의 방향은 엄지가 달라짐에 따라 신체 구조학상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음성학적으로 볼 때 가능한 조음(수향)이므로 독일의 수화 전사 체계인 함노시스(HamNoSys, Hamburg Sign Language Notation System)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수향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한국 수화 단어 쌍은 [연습]과 [청인]이 있다. 이 두 단어는 다섯 손가락을 다 펴서 구부린 수형, 입 앞의 수위, 회전 운동으로 세 요소는 동일하지만 손바닥의 방향이 몸 바깥쪽으로 향하면 [연습], 몸 쪽으로 향하면 [청인]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3.5. 비수지 기호

비수지 기호란 수화에서 손 이외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등을 일컫는다. 비수지 기호 역시 스토키의 분석에는 없는 요소이지만, 그 이후 미국 수화에서도 엔엠에스(NMS, non manually sign)라고 하여 수화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김승국(1989)은 손 이외 다른 신체 부위의 동작까지 취해 보이는 기호를 체동이라고 명명하며, 한국 수화에는 20개의 체동소가 있다고 했다. 즉, 손 이외의 얼굴 표정과 몸의 움직임 등이 수화에서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 자질이 된다.

한국 수화에서 [귀엽대]와 [아깝대]는 비수지 기호에서 의미의 차이가 달라지는 단어 쌍이다. 즉, 이 두 단어는 손가락을 다 펴고 붙인 수형, 왼쪽 볼 옆이라는 수위, 두드리는 수동, 비스듬히 오른쪽을 향한 손바닥의 방향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귀엽대]는 웃는 얼굴 표정을, [아깝대]는 아쉬운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4. 한국 수화 형태론

언어학에서 단어의 구조에 대한 연구 분야, 즉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와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단어들의 구조를 밝히는 분야가 형태론이다. 이 장에서는 언어학의 형태론적 측면에서 수화를 살펴본다.

4.1. 수화 단어의 형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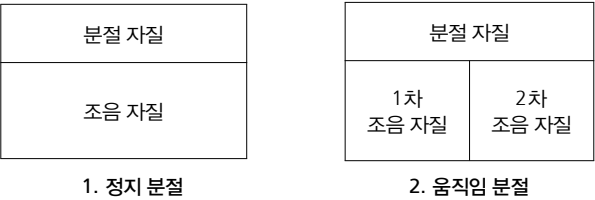
김칠관(1996)은 한국 수화의 단어 형성 방법을 복합 구성, 역행 조동, 역성, 파생, 복합어 등으로 나누었다. 수화 역시 언어이므로 수화의

단어 형성 방법은 음성 언어와 같은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파생과 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어할 수 있다. 그러나 수화는 음성 언어와는 다른 시각-운동 체계의 언어로서 갖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단어 형성에도 나타난다. 즉, 음성 언어와 달리 손 움직임이나 손 모양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미국 수화에서는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것(SIT-CHAIR), 복합화(compounding), 지문자수화(fingerspelled sings), 분류사(classifier predicate) 등을 단어의 파생 과정으로 보았다(Valli와 Lucas 2000). 이렇게 기존 단어를 이용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한국 수화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화 단어의 조어 방법을 음성 언어처럼 파생과 합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화 단어의 분절 구조를 통해 기술한다.

4.2. 단일 구조를 가진 수화 단어

윌리엄 스토키(1960)는 수형, 수위, 수동으로 수화를 분석하면서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조음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키 전사 체계는 수화 단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스콧 리들과 로버트 존슨(Scott K. Liddell & Robert E. Johnson 1984)은 수화의 동시성보다는 순차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화 단어의 구조를 기술했다. 이를 움직임-정지(movement-hold) 모델이라고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수화 단어에는 정지 분절(hold segment)과 움직임 분절(movement segment)이 있으며, 각 분절은 수형, 수위, 수향, 비수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절의 수형, 수위, 수향, 비수지 기호를 조음자질(조음소)이라고 하는데, 수화 단어는 이러한 분절의 순차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정지 분절은 이 조음소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일정한 상태로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에 비해 움직임 분절은 이 조음

그림 5 수화 단어의 분절 구조



출처: Liddel, S. & Johnson, R. (1989).

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정지 분절과 달리 두 개의 조음 자질의 집합체로 이루어진다. 이때 조음소 중 하나 이상이 동시에 변화할 수도 있다. 그림 4가 수화 단어의 분절 구조이다.

이러한 움직임-정지 모델에 의해 한국 수화 단어 중 단일어의 내적 구조를 보면, 정지 분절 하나(Hold)로만 이루어진 단어, 움직임 분절(Movement)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 움직여서 어떤 수위로 가서 정지(M-H)하는 두 개의 분절로 이루어진 단어, 어떤 수위에서 시작해 다른 수위로 이동해 접촉 또는 정지하는(H-M-H) 세 개의 분절로 이루어진 단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눈], [코]와 같이 신체 부위를 지적하는 수화 단어는 정지 분절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항생]이라는 수화는 몸 앞 공간에서 양손 모두 엄지와 검지를 편 수형으로 하여 양손의 검지를 마주보게 하는 수향으로 상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움직임 분절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또한 [맞대]라는 수화 단어는 손가락을 다 펴서 모은 수형과 손가락을 위로 하고 손바닥은 왼쪽으로 향한 수향인 채로 움직여 턱에 검지를 갖다 대는 두 개의 분절(M-H)로 이루어져 있다. [잘하다]라는 수화는 오른손(우세 손)이 왼쪽 하박의 시작점(팔꿈치)에서 왼쪽 하박(아래팔)

그림 6 움직임-정지 모델



눈

정지 분절로 이루어진 수화



항상

움직임 분절로 이루어진 수화



맞다

움직임-정지 분절로 이루어진 수화



잘하다

정자-움직임-정지 분절로 이루어진 수화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의 끝점(손목)으로 이동하는 정지-움직임-정지(H-M-H)의 3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조음소인 수형은 다섯 손가락을 붙여 편 모양이며, 수향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고 수위는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바뀐다. [과장이라는 수화는 움직임-정지-움직임-정지(M-H-M-H)의 4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수화는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

손을 왼팔의 손목 부분에서 중간 부분으로 움직여(M) 잠깐 접촉했다가(H) 다시 팔꿈치 쪽으로 움직여(M) 갖다 대는(H) 형태이다.

4.3. 복합 구조를 가진 수화 단어

수화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 내는 방법은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합성법,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법이 있다. 그러나 수화는 시각 언어이므로 음성 언어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즉, 수화는 음성 언어와는 달리 수형, 수위, 수동과 같은 수화의 조음소가 동시에 결합하는 동시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정지와 움직임의 분절로 구성된다는 연속성의 특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화에는 음성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 형성 과정이 있다. 단일어에 해당하지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단어 생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단어 생성 방법을 살펴본다.

4.3.1. 분절 층위의 변화에 따른 단어 형성

첫 번째 방법은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는 것으로 합성법과 파생법이 있다. 이러한 합성과 파생에 의해 형성된 수화 단어는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음 자질의 변화뿐 아니라, 어근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에 다른 분절 구조가 첨가되거나 삭제된다. 즉, 분절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넌]이라는 수화는 [물]과 [발]이라는 수화가 결합한 복합어이다. 이때 [물]이라는 수화는 정지(H) 분절로, [발]이라는 수화는 움직임-정지(M-H) 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단어가 결합한 [넌]은 정자-움직임-정지(H-M-H) 분절이 된다.

그림 7 분절 층위의 변화에 의한 단어 형성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4.3.2. 조음 자질의 변화에 의한 단어 형성

두 번째 방법은 시각 언어인 수화에서만 나타나는 조어 방법으로 어원적으로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를 가졌지만 어근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의 분절 층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형성 방법이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를 김칠관(1996)은 복합 구성 단순어라 했다.

예를 들어 [아들]이라는 수화는 [태어나다]라는 수화에서 수위와 수동을, [남자]라는 수화에서 수형을 가져와 결합한 형태다. 즉, 이 [아들]

그림 8 조음 자질의 변화에 의한 단어 형성



출처: 《한국수화사전》(2007).

이라는 수화는 어근에 해당하는 [태어나다]라는 수화의 분절 구조인 정자-움직임-정지(H-M-H)에서는 변화가 없고, 조음 자질인 수형만이 [남자]와 같은 수형으로 변화한 것이다.

5. 한국 수화 통사론

한국 수화는 한국어와는 분명히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 이는 한국 수화가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 수화의 통사적 특성을 문장 안에서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통해 살펴본다.

5.1. 주어의 실현

한국어는 조사를 통해, 영어는 어순을 통해 서술어의 주어를 나타낸다. 한국 수화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은 서술어(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일반 동사인 경우, 한국어와 같은 조사가 없으므로 어순, 즉 서술어의 주어를 서술어 앞에 놓음으로써 주어를 나타낸다. 그러나 서술어가 여러 개이거나 복문인 경우는 주어를 일정한 공간에서 해 보인 후, 그 공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주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수화를 함으로써 그 서술어의 주어를 나타낸다. 둘째, 굴절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손 모양을 통해 주어를 나타낸다. ‘꽃이 핀다’, ‘자동차가 간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피대, [가대라는 동사의 손 모양이 주어를 나타낸다. 이는 수화가 가지는 동시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꽃], [피대라는 수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 피대라는 수화 하나로 실현이 되며, [자동차, [가대로 표현하지 않고 자동차라는 손 모양을 한 채로 [가대라는 동사를 표현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가다’와 ‘사람이 가다’는 수형이 주어를 나타내고, 손동작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방향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출발점이 주어가 된다. 즉 수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위치가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가리킨 공간에서 동사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주다’라는 문장의 수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단계: [아빠 오른쪽 기준점 지시

2단계: [엄마 왼쪽 기준점 지시

3단계: [꽃], [주대]
오른쪽—왼쪽

그리고 [주대라는 수화를 할 때, 오른쪽 기준점에서 왼쪽 기준점으로 이동시켜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주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반대

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엄마가 아빠에게 꽃을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기준점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자격을 지닌다.

5.2. 목적어의 실현

한국 수화에서 목적어를 나타내는 방법 역시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사랑하대], [좋아하대]와 같은 일반 동사의 경우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술어의 목적어가 여러 개이거나 복문인 경우는 목적어를 일정한 공간에서 한 후에 그 공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주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수화를 함으로써 그 서술어의 목적어를 나타낸다. 둘째, 굴절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수형을 통해 목적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국수 먹대]와 [빵 먹대], [밥 먹대]는 [먹대]라는 수형에 의해 목적어가 나타난다. 이 또한 수화가 가지는 동시성으로 동사의 수형에 목적어가 병합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셋째, 방향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도착점이 목적어가 된다(주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음). 또한 [돕대], [가르치대]라는 수화처럼 양손 수화인 경우는 비우세손이 목적어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세손의 방향에 의해 목적어를 나타낸다.

5.3. 관형어와 부사어의 실현

한국어에서는 관형어가 꾸밈을 받는 체언 앞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한국 수화에서는 이러한 한정적 표현 없이 서술적 표현으로 수식이 이루어지며 두 개의 문장으로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큰 집을 샀다”라는 문장의 경우도 [나], [크대], [집], [사대]라고 수화를 할 경우는 “내가 크고, 집을 샀다”라는 의미로 왜곡된다. 따라서 [나], [집], [사대], [집], [크대]라고 해야 한다.

부사어는 별도의 수화 단어 없이 비수지 기호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어휘를 통해 명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즉 ‘철수가 빨리 달린다’의 경우에 [달리대라는 수화를 하면서 동사의 움직임 속도나 얼굴 표정을 통해 나타내거나 [달리대, [빠르대처럼 동사 뒤에 형용사를 연이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나는 산에서 공부한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나, [산, [공부하대라고 하면 ‘나는 산을(에 대해서) 공부하다’라는 의미로 왜곡된다. 물론 장소를 나타내는 수화 어휘를 사용해 [나, [산, [곳/에 세, [공부하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따라서 [나, [산에 오르대, [공부하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5.4. 부정 표현

한국 수화에서 부정문은 부정을 나타내는 수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수지 기호를 사용해서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즉 부정을 나타내는 수화 어휘가 없더라도 [먹대에 고개를 흔드는 비수지 기호가 동반되면 ‘먹지 않다’가 된다. 엄미숙(1996)은 부정법을 ‘없다’ 부정법, ‘아직’ 부정법, ‘못하다’ 부정법, ‘아니다’ 부정법, ‘안 되다’ 부정법, ‘말다’ 부정법, ‘모르다’ 부정법 등 일곱 가지로 분류했다. 본고에서는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부정하는 부정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사실 진위 부정으로 [안/아니 -아니대 부정법이다. 이는 동작하는 주체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을 때 사용한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는 [그, [학생, [아니대로 한다. 둘째는 능력 부정으로 [못/-지 못하대 부정법이다. 이는 능력이나 외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때 사용한다. ‘나는 수화를 못해요’는 [나, [수화, [못하대로 한다. 셋째는 상태나 존재 부정의 부정으로 [없대라는 수화로 나타낸다. 이는 시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서술어에 내포된 의미가 없을 때 쓰

이며, 사실의 진위를 부정하거나 능력의 부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 ‘동생은 예쁘지 않다’는 수화로 [동생], [예쁘대], [없대]로 하며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어제], [비], [없대]로 한다. 넷째는 완료 부정으로 [아직]이라는 수화를 사용한다. 즉, 어떤 동작이나 행동의 완결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라는 문장은 [오늘], [아침], [먹대], [아직]으로 나타낸다. 다섯째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사용하는 부정으로 [안 되대]와 [-지 말아라/말재]가 있다.

6. 맺음말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을 언어학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화가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보편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임을 알았다. 물론 수화는 시각 언어이므로 음성 언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학적으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틀 안에서 그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의미론과 화용론의 틀 안에서 수화의 언어학적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화는 단순히 손짓이나 제스처가 아니며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도 아니다. 분명 우리말(한국어)과 다르기는 하지만 언어로서의 자격을 갖춘 완벽한 언어이다. 따라서 한국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한국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권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교육과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복지 한국, 선진 한국의 모습이다.

참고 문헌

-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2007), 《한국 수화 사전》(개정판), 국립국어원·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김승국(1983),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칠관(1996), 한국 고유 수화 단어에서의 복합 구성 특성, 《수화 연구》 창간호, 3~18.
- 석동일(1989),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 학위 청구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엄미숙(1996), 한국 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대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원성옥·장은숙(2003), 한국복합수화의 조어 특성, 《재활복지연구》 1, 135~157.
- Liddell, S. & Johnson, R.(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95~277.
- Stokoe, W. C. Jr.(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Buffalo: University of Buffalo.
- Valli, C. & Lucas, C.(2000),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 C.: Gallaudet University.